

제국의 위안부' 일독을 권하며

카테고리 : [도그마에 대한 도전](#), [역사의 책갈피에서](#) | 작성자 : [삼척동자]
2014-07-30 by [삼척동자]



지난해 8월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란 책이 뒤늦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경기 광주시 '나눔에 집'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에 의해 피소된 여파라고 합니다. 출판사에 따르면 책이 출간되고 10개월간 1500부가 팔렸는데 뒤 2개월 간 똑같이 1500만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팔순 넘은 할머니들이 정말 이 책을 읽으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할머니들을 돌봐온 '나눔의 집' 측에서 발췌해 읽어준 부분만 보고 격노하셨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소송 관련 보도를 피상적으로 접한 분들도 감성적으로 할머니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판을 위해선 일단 문제의 책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박 교수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번 소송이 순수한 분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책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서평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던 ‘나눔의 집’ 측이 1년이 다 돼서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총리후보자로 나선 문창극 씨의 일본군 위안부 폄훼발언으로 여론이 비등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셋째 박유하 교수가 ‘나눔의 집’에 사시는 할머니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박 교수에 동조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소송제기가 이뤄졌습니다. 누군가 박유하 교수를 공격하기 위해 절묘한 타이밍을 계산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그와 맞서 싸우며 뒹굴다가 어느새 변해버린 자신을 확인할 때입니다. 지난해 8월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바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일본 우익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아십니다. 저 역시 이 책의 앞부분만 읽고 살짝 거부감이 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제대로 몰랐던 부분에 새롭게 눈을 떴고 저자의 주장 중 상당부분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 장문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아래는 그 서평의 일부입니다. 부디 박유하 교수를 일본 우익의 앞잡이라고 쉽게 매도하기 전에 꼭 <제국의 위안부>를 먼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제 3의 목소리’ 심포지엄에서 나란히 앉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와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와다 교수가 박 교수의 주장을 지지한 것을 알고도 과연 박 교수를 '일본 우익의 대변자'라고 쉽게 폄하할 수 있을까?

8·15 광복절을 앞두고 출간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다룬 책이라고 하면 선뜻 떠오를 통념을 무참하게 깨버린다. 한마디로 위안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인식과 접근방식이 오늘날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했다는 것이다.

울컥했다. ‘뭐야,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를 매춘부라고 매도하는 가해자 일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건가.’

저자가 그런 천박한 일본 우익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인권침해 범죄의 책임이 일본제국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와 가난, 가부장제, 국가주의의 복합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일본의 국가범죄와 배상으로 연결지으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영원한 불모로 잡아두는 짓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 한국인이자라면 ‘아니 왜 우리가 연약한 피해자 편에 서서 오만한 가해자를 철저히 단죄하는 데 인색해야 하지?’라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우리 자신에게 불편한 내용은 외면하고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만 확대 재생산하는 기억의 조작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래서 이해와 화해가 아니라 분노와 적대의 악순환만 초래하고 있다면?

‘반일민족주의를 넘어서’와 ‘화해를 위해서-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라는 책을 쓴 저자는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 게이오대와 와세다대 대학원에서 일문학을 전공한 세종대 일문과 교수이다. 한마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런 저자의 문제의식은 1990년 초 한일관계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위안부 문제가 왜 2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달는가에서 출발한다. 한국인들은 이를 일본의 우경화 탓으로 돌린다. 저자는 반대로 한국인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던 문제를 키워냈고, 이로 인해 일본 우익뿐 아니라 이 문제에 죄의식을 느끼던 일반 일본인까지 영증을 일으키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나름의 사죄와 보상을 했다. 일본 아베 내각이 들어선 뒤 그 존재가치가 새삼 부각되는 고노 담화(1993년)는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당시 무라야마 내각은 한발 더 나가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조성해 위안부 1인당 200만 엔의 보상금과 총리의 사죄편지를 보내고 7억엔 규모의 의료복지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직접적 강제연행까지 인정하진 않았지만 그 ‘구조적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또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는 자민당 의원이 세 배나 많은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이 불가능했기에 민간참여를 앞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일본 정부 돈(10년간 1000억 엔)으로 기금을 마련한 것이었다. 게다가 우리말로 보상은 번역된 ‘쓰구나이’란 일본어 표현에는 죄를 씻는다는 속죄의 의미가 담겼다.

2003년까지 지속된 이 사업을 통해 필리핀 대만 한국의 위안부 285명이 속죄금을 받았다. 한국에선 모두 61명이 이를 수령했다(수령을 강력 거부하는 위안부

할머니의 숫자와 비슷하다). 이 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한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의 90% 가까이가 일본정부 국고에서 지출됐다.



일본군 위안소 입구에 붙은 격문. 왼쪽은 ‘몸과 마음을 바치는 야마토 나데시코(大和撫子)의 서비스’, 오른쪽은 ‘성전에서 대승한 용사를 대환영한다’는 내용이다. 야마토 나데시코는 ‘아름다운 일본 여성’의 대명사라는 점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결국 일본인 위안부의 대체제였음을 보여주는 한편 그들에게 신체적 위안뿐 아니라 정신적 위안까지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뿌리와이파리 제공

문제는 갈수록 권력화하는 한국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의 이런 속사정은 모른 채 ‘국회입법에 의한 국가배상’만 요구하면서 사태가 크게 꼬여버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여기에 위안부 문제를 과거 일본제국의 사과와 반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우익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삼는 일본 진보진영의 ‘냉전적 사고’가 더해지면서 일본 우익의 내면에 잠들던 ‘악마’를 깨웠다는 것이다. 즉 당초 국민기금 설립에 반대하지 않던 자민당과 요미우리신문이 종전 입장을 번복하고 적극 반대로 돌아선 배경에는 일본인의 피로감과 반감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진짜 민감한 대목은 지금부터다. 저자는 위안부들의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일본군의 잔학성에 균열을 가하는 증언’들을 하나하나 들려준다. 그들을 속여서 전쟁터로 끌고 가 학대와 착취를 일삼은 주체는 대부분 동포인 조선인 민간업자였다. 조선인 위안부는 19세기부터 등장한 일본인 위안부(가라유키)의 대체재로서 중국인이나 동남아시아인 위안부와 달리 특별취급을 받았다. 조선인 위안부가 일본군이 패망의 순간까지 보호하려 한 ‘군수품’이었다면 다른 나라 여성은 마음대로 강간하고 죽여도 되는 ‘전리품’이었다. 상당수 위안부들은 역시 제국주의의 희생양으로 끌려와 죽음을 눈앞에 둔 일본군 병사에게 동병상련을 느꼈고 사랑에 빠진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평균연령은 25세의 빈곤층 여성이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속의 위안부는 ‘일본군 군화발에 짓밟히는 가녀린 열다섯 소녀’
아니면 ‘노구를 이끌고 투쟁하는 투사’다. 일제가 14세~25세 여성 노동력 동원을
위해 여학생들 중심으로 모집이 이뤄졌던 정신대와 혼동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묻는다. 착종된 이 이미지가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강화시키면서 정작 동족을
팔아먹은 우리의 죄에 대해 눈감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양갈음을 위해 우리 대신 싸움을 벌이는 팔손 할머니들 뒤에 숨으려는
유아의식의 발로는 아닐까. 저자의 이런 도발적 주장에 수긍하기란 분명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을 매섭게 노려만 봐온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쯤
거울에 비쳐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